

수신	각 언론사 여성.사회 담당
발신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02-338-2890 f.counsel@sisters.or.kr)
제목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보도요청
날짜	2020. 3. 4. (총 18쪽)

보도요청

-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에 깊은 신뢰와 경의를 보냅니다.
- 본 상담소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상담활동과 지원활동을 하고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업을 함으로써 여성의 인권 확보와 성평등 사회의 정착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본 상담소는 1991년부터 2019년까지 29년 동안 총 85,225회의 상담을 해왔으며, 매년 한해 동안의 상담 통계를 분석함으로써 달라지는 성폭력 관련 상담의 경향을 짚어봅니다.
- 2019년 본 상담소에서 진행한 전체상담은 1,419회(1,028건)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 총 1,294회(912건)에 대한 기본 상담통계와 친족 성폭력 및 교육기관에서 일어난 성폭력 상담의 세부 상담 통계를 분석하였습니다
- 다음과 같이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을 보내드리오니 보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첨부]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분석 (총 17쪽)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동향 분석

I. 2019년 기본 상담 통계

1. 연도별 상담현황 -----	2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92.1%가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는 6.8% -----	2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의 91.6%가 남성, 이중 성인은 76.5% -----	3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전체 상담 중 61.6%가 본인이 직접 상담의뢰, 36.3%가 대리인 상담의뢰 ---	3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유형 중 강제추행 피해가 가장 많고 강간 피해가 뒤이어 ---	4
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인 가해자가 전체의 82.5% -----	5
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7.6% -----	5
8. 피해자 지원내용 -----	6

II. 2019년 상담통계 세부분석

1. 친족 성폭력 세부통계 및 분석 -----	8
2. 교육기관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상담 세부통계 및 분석 -----	12

III. 결론 -----	17
---------------	----

1. 한국성폭력상담소 2019년 상담통계

1. 연도별 상담현황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19년까지 29년 동안 총 85,225회의 상담을 해왔다. 2019년 전체상담은 1,419회(1,028건)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1,294회(912건)으로 전체상담건수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88.7%이다.

표 1 연도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도	상담회수	상담건수(A)	성폭력상담건수(B)	성폭력상담비율(B/A)
1991.92	2,834	2,028	1,349	66.5
1993	1,765	1,182	841	71.1
1994	2,553	1,723	1,356	78.7
1995	2,050	1,238	1,021	82.5
1996	3,459	2,138	1,779	83.2
1997	3,424	2,295	1,647	71.8
1998	4,285	2,948	2,085	70.7
1999	5,397	3,692	2,564	69.4
2000	4,164	2,873	2,309	80.4
2001	4,995	3,593	2,869	79.8
2002	4,877	3,533	2,961	83.8
2003	4,871	3,135	2,839	90.6
2004	3,870	2,505	2,362	94.3
2005	3,979	2,348	2,151	91.6
2006	4,246	2,468	2,317	93.8
2007	3,330	2,101	1,948	92.7
2008	2,237	1,548	1,430	92.4
2009	2,305	1,481	1,338	90.3
2010	2,227	1,474	1,312	89.0
2011	1,764	1,238	1,151	92.9
2012	2,390	1,437	1,321	91.9
2013	2,253	1,531	1,418	92.6
2014	2,185	1,602	1,450	90.5
2015	2,064	1,422	1,308	91.9
2016	2,224	1,501	1,353	90.1
2017	2,118	1,414	1,260	89.1
2018	1,940	1,359	1,189	87.5
2019	1,419	1,028	912	88.7
총	85,225	56,835	47,840	84.2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92.1%가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는 6.8%

<표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상담 전체건수 912건 중 840건(92.1%)이 여성 피해

자로 나타났다. 이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준다. 전체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집단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인여성 피해자로, 총 640건(70.2%)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 피해자의 비중은 6.8%(62건)로 2017년 5.2%, 2018년 6.1%에 이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피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고령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5 (0.5)	640 (70.2)	90 (9.9)	56 (6.1)	22 (2.4)	27 (3)	840 (92.1)
남	0 (0.0)	46 (5.0)	11 (1.2)	5 (0.5)	0 (0.0)	0 (0.0)	62 (6.8)
미상	0 (0.0)	5 (0.5)	1 (0.1)	1 (0.1)	0 (0.0)	3 (0.3)	10 (1.1)
총계	5 (0.5)	691 (75.8)	102 (11.2)	62 (6.8)	22 (2.4)	30 (3.3)	912 (100.0)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의 91.6%가 남성, 이중 성인은 76.5%

<표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전체 가해자 성별 중 남성이 전체 912건 중 835건(91.6%)을 차지하였다. 이 중 성인남성 가해자가 698건(76.5%)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표 3 가해자 성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연령대 성별	고령	성인 (20세 이상)	청소년 (19세-14세)	어린이 (13세-8세)	유아 (7세 이하)	미상	총계
여	0 (0.0)	40 (4.4)	1 (0.1)	2 (0.2)	0 (0.0)	0 (0.0)	43 (4.7)
남	19 (2.1)	698 (76.5)	58 (6.4)	16 (1.8)	0 (0.0)	44 (4.8)	835 (91.6)
미상	0 (0.0)	12 (1.3)	1 (0.1)	1 (0.1)	0 (0.0)	20 (2.2)	34 (3.7)
총계	19 (2.1)	750 (82.2)	60 (6.6)	19 (2.1)	0 (0.0)	64 (7.0)	912 (100.0)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전체 상담 중 61.6%가 본인이 직접 상담의뢰, 36.3%가 대리인 상담의뢰

<표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을 보면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건수는 912건 중 562건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했다. 대리인이 상담을 한 건수는 331건으로 전체의 36.3%를 차지했다. 대리인 상담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족/친인척이 상담을 한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이웃·친구가 뒤를 이었다.

2015년 전만 해도 본인이 직접 상담한 비율이 매해 50% 초중반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이 조

금씩 커져 2018년에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하였고, 올해도 60%대의 비중을 차지했다. 본인이 스스로 상담소를 찾아 성폭력을 말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증가했음을 뜻한다. 이는 성폭력 생존자가 스스로 성폭력을 고발해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했던 미투(#Me_Too)운동의 영향으로 보인다.

표 4 상담 의뢰인별 상담 현황

<단위: 건(%)>

전체상담 건수	본인	대리인 331(36.3)										본인/대리인 (함께 상담)	미상
		가족·친인척	데이트 상대	이웃·친구	직장	학교·학원	사회 복지 기관	기관·단체	공공 및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기타		
912 (100.0)	562 (61.6)	155 (17.0)	27 (3.0)	45 (4.9)	28 (3.1)	26 (2.9)	2 (0.2)	3 (0.3)	16 (1.8)	8 (0.9)	21 (2.3)	10 (1.1)	9 (1.0)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유형 중 강제추행 피해가 가장 많고 강간 피해가 뒤이어

<표5.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을 보면 전체 유형 중 강제추행 피해가 350건(38.4%)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 284건(31.1%), 성희롱 130건(14.3%)이 뒤를 이었다. 이는 전년도와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연령별로 보면 피해자의 연령이 고령(65세 이상), 성인(20세 이상), 어린이(13세-8세)일 경우 강제추행이 가장 많았고, 청소년(19세-14세), 유아(7세 이하)일 경우 강간 및 강간미수 피해가 강제추행보다 약간 더 많았다.

표 5 피해 유형별·연령별 상담현황

<단위: 건(%)>

피해유형		피해자 연령						계	
		고령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및 강간미수	특수강간	-	7 (0.8)	2 (0.2)	-	-	-	9 (1.0)	284 (31.1)
	강간 (유사강간포함)	1 (0.1)	124 (13.6)	37 (4.1)	18 (2.0)	12 (1.3)	7 (0.8)	199 (21.8)	
	준강간	-	52 (5.7)	-	-	-	1 (0.1)	53 (5.8)	
	강간미수	-	19 (2.1)	3 (0.3)	-	-	1 (0.1)	23 (2.5)	
강제추행	강제추행	2 (0.2)	251 (27.5)	37 (4.1)	26 (2.9)	9 (1.0)	5 (0.5)	330 (36.2)	350 (38.4)
	준강제추행	-	17 (1.9)	1 (0.1)	2 (0.2)	-	-	20 (2.2)	
성희롱		1 (0.1)	113 (12.4)	9 (1.0)	6 (0.7)	-	1 (0.1)	130 (14.3)	
통신매체이용음란		-	13 (1.4)	4 (0.4)	-	-	-	17 (1.9)	
카메라이용촬영		1 (0.1)	35 (3.8)	3 (0.3)	1 (0.1)	-	1 (0.1)	41 (4.5)	
스토킹		-	29 (3.2)	1 (0.1)	-	-	-	30 (3.3)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	-	2 (0.2)	-	1 (0.1)	-	-	3 (0.3)
미상	-	29 (3.2)	5 (0.5)	8 (0.9)	1 (0.1)	14 (1.5)	57 (6.3)
성폭력 계	5 (0.5)	691 (75.8)	102 (11.2)	62 (6.8)	22 (2.4)	30 (3.3)	912 (100.0)

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인 가해자가 전체의 82.5%

〈표6. 가해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을 살펴보면 성인 가해자가 752명으로 전체의 82.5%를 차지하고 있다.

표 6 가해 유형별·연령별 상담 현황

<단위: 건(%)>

피해유형		가 해 자 연 령						계	
		고령	성인	청소년	어린이	유아	미상		
강간 및 강간 미수	특수강간	-	7 (0.8)	1 (0.1)	-	-	1 (0.1)	9 (1.0)	284 (31.1)
	강간 (유사강간포함)	2 (0.2)	155 (17.0)	21 (2.3)	3 (0.3)	-	18 (2.0)	199 (21.8)	
	준강간	-	47 (5.2)	1 (0.1)	-	-	5 (0.5)	53 (5.8)	
	강간미수	1 (0.1)	21 (2.3)	-	-	-	1 (0.1)	23 (2.5)	
강제 추행	강제추행	15 (1.6)	272 (29.8)	22 (2.4)	9 (1.0)	-	12 (1.3)	330 (36.2)	350 (38.4)
	준강제 추행	-	17 (1.9)	3 (0.3)	-	-	-	20 (2.2)	
성희롱		-	116 (12.7)	5 (0.5)	5 (0.5)	-	4 (0.4)	130 (14.3)	
통신매체이용음란		-	14 (1.5)	1 (0.1)	1 (0.1)	-	1 (0.1)	17 (1.9)	
카메라이용촬영		-	33 (3.6)	2 (0.2)	1 (0.1)	-	5 (0.5)	41 (4.5)	
스토킹		-	30 (3.3)	-	-	-	-	30 (3.3)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침입		-	2 (0.2)	-	-	-	1 (0.1)	3 (0.3)	
미상		1 (0.1)	38 (4.2)	2 (0.2)	-	-	16 (1.8)	57 (6.3)	
성폭력 계		19 (2.1)	752 (82.5)	58 (6.4)	19 (2.1)	-	64 (7.0)	912 (100.0)	

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게 의한 피해가 87.6%

〈표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성폭력은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799건

(87.6%)으로 85%이상의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매년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피해 연령별로는 성인의 경우 직장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274건(39.6%)으로 성인 피해의 1/3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동네 사람에 의한 피해가 두 번째로 많았던 작년과 달리 데이트 상대나 배우자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한 피해가 80건(11.6%)으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한편, 청소년은 학교 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24건(23.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족에 의한 피해가 15건(14.7%)으로 뒤를 이었다. 어린이와 유아인 경우 친족에 의한 피해가 각각 28건(45.2%), 16건(72.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7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건(%)>

계	유형	아는 사람 799(87.6)											모르는 사람	미상	총계	
		친족, 친족외 인척 88(9.6)		직장	친밀한 관계	인터넷	동네 사람	서비스 제공자	학교	유치원 /학원	주변인 의 지인	동호회				기타
		친족	친족외 인척													
2016년		118 (8.7)	19 (1.4)	368 (27.2)	141 (10.4)	43 (3.2)	63 (4.7)	78 (5.8)	160 (11.8)	35 (2.6)	102 (7.5)	11 (0.8)	40 (3.0)	101 (7.5)	74 (5.5)	1,353 (100.0)
2017년		121 (9.6)	22 (1.7)	375 (29.8)	116 (9.2)	40 (3.2)	60 (4.8)	66 (5.2)	121 (9.6)	40 (3.2)	73 (5.8)	19 (1.5)	45 (3.6)	103 (8.2)	59 (4.7)	1,260 (100.0)
2018년		64 (5.4)	66 (5.6)	353 (29.7)	86 (7.2)	41 (3.4)	65 (5.5)	60 (5.0)	136 (11.4)	39 (3.3)	66 (5.6)	13 (1.1)	40 (3.4)	73 (6.1)	87 (9.3)	1189 (100.0)
2019년		78 (8.6)	9 (1.0)	276 (30.3)	94 (10.3)	24 (2.6)	92 (10.1)	41 (4.5)	87 (9.5)	33 (3.6)	28 (3.1)	31 (3.4)	6 (0.7)	43 (4.7)	70 (7.7)	912 (100.0)
고령 (65세 이상)		-	-	2 (40)	-	-	1 (20)	-	-	-	1 (20)	-	1 (20)	-	-	5 (100)
성인 (20세 이상)		12 (1.7)	4 (0.6)	274 (39.6)	80 (11.6)	16 (2.3)	62 (9.0)	37 (5.4)	53 (7.7)	17 (2.5)	21 (3.0)	29 (4.2)	5 (0.7)	36 (5.2)	45 (6.5)	691 (100.0)
청소년 (19세-14세)		15 (14.7)	3 (2.9)	-	11 (10.8)	5 (4.9)	14 (13.7)	3 (2.9)	24 (23.5)	11 (10.8)	3 (2.9)	1 (1.0)	-	3 (2.9)	9 (8.8)	102 (100.0)
어린이 (13세-8세)		28 (45.2)	1 (1.6)	-	-	2 (3.2)	10 (16.1)	-	10 (16.1)	4 (6.5)	2 (3.2)	-	-	4 (6.5)	1 (1.6)	62 (100.0)
유아 (7세 이하)		16 (72.7)	1 (4.5)	-	-	-	2 (9.1)	-	-	1 (4.5)	1 (4.5)	-	-	-	1 (4.5)	22 (100.0)
미상		7 (23.3)	-	-	3 (10.0)	1 (3.3)	3 (10.0)	1 (3.3)	-	-	-	1 (3.3)	-	-	14 (46.7)	30 (100.0)

8. 피해자 지원내용

<표8. 피해자 지원내용>은 본 상담소가 2019년 상담을 의뢰받은 피해자를 상담소가 어떻게 지원하였는지 보여주는 표이다. 중복표기 하였으며 심리·정서 지원이 518건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로 법적 지원이 466건으로 많았다.

법적 지원은 월요법률상담, 법률자문위원 소속 변호사 자문, 수사재판 동행 및 모니터링, 의견서와 상담 기록 제출 등의 사건지원과 전화상 법률 및 법률서비스기관 안내 및 연계로 이루어진다. 심리 및 정서지원은 전화상 피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지원하며 내부 면접상담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의료지원의 경우, 피해자에게 의료기관을 연계하거나 치료 및 상담에 동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있는 피해자에게는 치료비 지원을 안내하거나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쉼터연계는 쉼터 입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쉼터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부분이며 기타는 피해자를 거주지역의 상담소나 단체로 연계하거나 기타 치유프로그램 등의 참

여를 권한 경우이다.

표 8 피해자 지원내용(중복)

<단위: 건(%)>

전체지원수	법적지원	의료지원		심리·정서 지원	쉼터연계	기타
		의료기관 연계·동행	의료비지원 관련 상담			
912 (100.0)	466 (51.1)	32 (3.5)	29 (3.2)	518 (56.8)	3 (0.3)	45 (4.9)
		61 (6.7)				

II. 2019년 상담통계 세부분석

2019년에도 지속된 #미투운동 변화의 물결을 이끌어나가는 힘은 성폭력 생존자들의 말하기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2019년은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의 말하기가 더 드러나고, 청소년들이 주도하는 스쿨미투가 끊이지 않았던 한 해였다. 이에 본 상담소는 생존자들이 말하기를 계속해가고 있는 친족 성폭력과 교육기관 내 성폭력에 주목하였다.

1. 친족 성폭력 세부통계 및 분석

친족 성폭력은 친밀한 가족관계 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식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친족 성폭력이 가진 다양한 특성으로 인해 빠른 대응을 할 수 없게 만든다. 피해자들이 가해자 처벌을 결심하게 된 때는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되기 십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2019년 성폭력 피해자 상담통계를 통해서 친족 성폭력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우선 성폭력특별법에서 친족이란 4촌 이내의 혈족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본 상담소에서는 친부, 의부, 친형제, 시부를 따로 분류하였고, 형부, 제부, 의형제는 2촌 이내 친족, 조부, 삼촌, 사촌은 4촌 이내 친족에 포함되어 있다. (표 9 참조)

1-1. 전체 성폭력 상담 중 친족 성폭력 상담은 87건(9.5%)이며, 그 중에서 7세~13세인 어린이 시기 피해가 33.3%로 가장 높아

2019년 전체 성폭력 상담 건 총 912건 중 친족 성폭력은 87건으로 9.5%에 해당한다.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는 7세에서 13세인 어린이 시기가 29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그 외의 시기는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 피해자는 대부분 가해자가 친부, 4촌 이내 친족, 형제며 각각 10건(11.4%), 9건(10.3%), 8건(9.2%)으로 나타난다. 한편, 전체 가해자 중에서는 4촌 이내 친족이 29건(33.3%)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친부(20건, 23%)가 이었다.

표 9 친족 성폭력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건(%)>

연령 \ 관계	친부	의부	형제	2촌이내 친족	4촌이내 친족	시부	그 외 친족	합계
성인 (20세 이상)	-	1 (1.2)	1 (1.2)	3 (3.4)	5 (5.7)	2 (2.3)	5 (5.7)	17 (19.5)
청소년 (19세-14세)	3 (3.5)	3 (3.4)	4 (4.6)	-	5 (5.7)	-	3 (3.5)	18 (20.7)
어린이 (13세-8세)	10 (11.4)	-	8 (9.2)	1 (1.2)	9 (10.3)	-	1 (1.2)	29 (33.3)
유아 (7세 이하)	5 (5.8)	-	4 (4.6)	-	7 (8.0)	-	-	16 (18.4)
미상	2 (2.3)	-	1 (1.1)	1 (1.1)	3 (3.5)	-	-	7 (8.0)
합계	20 (23)	4 (4.6)	18 (20.7)	5 (5.7)	29 (33.3)	2 (2.3)	9 (10.3)	87 (100)

1-2. 친족 성폭력 피해 중 강간과 강제추행 피해가 85%

친족 성폭력에서의 강제추행은 49.4%(43건)로 전체 성폭력 상담통계 <표 5>의 강제추행 38.4%(350건)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강간의 경우도 35.6%(31건)로 전체 성폭력 상담통계 <표 5>의 강간 31.1%(284건)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강간과 강제추행 건수를 합하면, 전체 성폭력 상담통계의 경우는 69.5%인데 비해 친족 성폭력의 경우는 85%로 15%가 넘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친족 성폭력 피해에서는 특히 성폭력 유형이 강간과 강제추행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0 피해연령별 피해 유형

<단위: 건(%)>

연령 \ 유형	강간	강제추행	성희롱	카메라이용촬영	스토킹	미상	합계
성인 (20세 이상)	4 (4.5)	12 (13.8)	-	1 (1.2)	-	1 (1.2)	18 (20.7)
청소년 (19세-14세)	5 (5.7)	9 (10.3)	1 (1.2)	-	1 (1.2)	2 (2.3)	18 (20.7)
어린이 (13세-8세)	10 (11.5)	15 (17.2)	-	-	-	4 (4.6)	29 (33.3)
유아 (7세 이하)	9 (10.3)	7 (8.0)	-	-	-	-	16 (18.3)
미상	3 (3.5)	-	-	-	-	3 (3.5)	6 (7.0)
합계	31 (35.6)	43 (49.4)	1 (1.2)	1 (1.2)	1 (1.2)	10 (11.4)	87 (100)

1-3. 친족 성폭력 피해 이후 상담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55.2%

친족 내 성폭력 피해를 상담소에 상담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 미만은 24.1%(21건)이고 10년 이상은 55.2%(48건)에 해당한다. 2018년 상담통계 중 미투 세부통계 분석에서 10년 이상 경과한 상담이 41.4%이며 스쿨미투의 경우도 2.7%로 나타난 것을 보면 특히 친족 성폭력의 경우는 상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분석에서 1년 이전에 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한 경우는 대부분이 피해를 인지한 후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한 상담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0년 이상이 지난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참아온 분노를 해소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고 그 방법으로 심리상담이나 법적인 대응 또는 사과 요구나 가족 내 피해 공개 등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

최근 미투 운동의 영향으로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이 사회 전반에 변화를 일으켰고 피해 이후 10년 이상 지난 사건들은 친족 성폭력의 특수성의 장벽에 그동안 가로막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말하고 대응하기를 결심하고 상담소의 문을 두드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친족 성폭력 피해는 다른 성폭력 피해보다 피해를 드러내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1 피해 이후 상담까지의 경과 기간

<단위: 건(%)>

건수 \ 기간	1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미상
87 (100)	21 (24.1)	4 (4.6)	12 (13.8)	48 (55.2)	2 (2.3)

1-4. 친족 성폭력 상담의 경우 다른 상담에 비해 대리인 상담 비중이 높고 대리인 중에서도 가족이 76% 차지

201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전체 상담통계 <표 4>에서 피해자 본인이 상담한 건수는 562건으로 61.6%이며 대리인이 상담한 건수는 331건으로 36.3%이다. 친족 성폭력의 경우는 <표 12>와 같이 본인 상담이 87건 중 41건으로 47.1%에 해당되며 대리인 상담은 46건, 52.9%로 대리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대리인 중에서도 전체 성폭력 상담의 경우 가족이 대리인인 경우는 155명 17%인데 비해 친족 성폭력의 경우는 가족이 대리인으로 상담한 건이 35건으로 40.2%이다. 이는 대리인 상담 총 46건 중 35건으로 76%에 해당하여 가족이 대리인으로 상담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성폭력 상담통계와 비교하면 친족 성폭력의 가족, 대리인 상담 비중이 2배 이상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친족 성폭력 상담 의뢰인별 상담 현황

<단위: 건(%)>

관계 건수	본인	대리인 46(52.9)					
		가족	데이트상대	이웃친구	학교	유관기관	기타
건수	41 (47.1)	35 (40.2)	4 (4.6)	1 (1.2)	2 (2.3)	2 (2.3)	2 (2.3)

친족 성폭력은 피해 당시 가족에게 말하기도 어렵고 말하더라도 지지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위 통계 중 친족 성폭력에서 대리인 상담, 그 중에서도 가족 대리인 상담이 많은 것은 어떤 의미일까. 친족 성폭력 상담 시 본인이 직접 상담한 경우는 피해를 주변인에게 이야기했는지, 그리고 이야기했다면 주변인의 태도가 어땠는지를 살펴보고 대리인 상담의 경우는 피해자에 대한 대리인의 태도를 알아보았다.

본인이 직접 상담한 친족 성폭력 사례 41건 중 22건은 피해 이후 주변인에게 알렸으나 지지를 받지 못하였고 17건은 아예 대응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에서 본인이 주변인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답을 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친족성폭력의 경우 <표 12>와 같이 가족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은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많이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가족 대리인의 초기 대응과 지지가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3 친족 성폭력 본인 상담 중 피해자 주변인의 태도

<단위: 건(%)>

건수	태도	지지받지 못함	대응 못함	미상
41 (100.0)		22 (53.7)	17 (41.5)	2 (4.9)

또 대리인 상담의 경우는 전체 46건으로, 그 중 내담자인 대리인이 피해자를 지지하는 건은 36건(78.3%)이었고, 지지하지 않고 방관했던 경우는 3건(6.5%), 과잉대응이 3건(6.5%), 양가감정을 나타낸 건이 4건(8.7%)으로 분석되었다. 이 두 표로 알 수 있는 것은 친족 성폭력에서 피해자 본인이 상담할 때는 대부분 지지받지 못하였거나, 말하지 못한 것으로 응답했고, 대리인이 상담하는 경우는 대부분 피해자를 지지한다고 표현한 것으로 나타난

다. 대리인 상담에서 이렇게 지지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피해를 알게 된 후 피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상담소에 상담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가감정을 나타낸 건은 4건(8.7%)으로 나타났는데 실제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 상담소 상담통계 작성 방식에서 친족 성폭력 상담시 내담자가 가해자를 지지하는 상담을 하는 경우는 가해자 상담으로 처리되어 친족 성폭력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측면도 있다.

표 14 친족 성폭력 대리인 상담 중 대리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단위: 건(%)>

태도	지지	방관	과잉보호	양가감정
건수	36	3	3	4
	(78.3)	(6.5)	(6.5)	(8.7)
46 (100.0)				

1-5.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의 49.4%가 상담 전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

친족 성폭력 피해자들이 상담소에 상담하기 전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표 15 상담 전 대응방법>을 살펴 보면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43건(49.4%)에 해당하며 그다음에 법적인 대응 17건(19.5%), 대응하지 못한 경우도 14건(16.1%)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피해자 주변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실제로 상담현장에서 피해자들은 주변인에게 많이 도움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공감과 지지,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그런 상황에서 피해가 더 오래 지속되고 이후 일상으로의 복귀도 더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친족 성폭력뿐 아니라 성폭력 피해 이후 주변 지인들의 대응이 피해자의 치유와 일상회복을 위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5 상담 전 대응방법

<단위: 건(%)>

대응방법	법적대응	기관	주변인 도움	사과 요구	대응못함
건수	17	4	43	9	14
	(19.5)	(4.6)	(49.4)	(10.4)	(16.1)
87 (87)					

1-6. 친족 성폭력 상담에서 내담자가 상담소에 요청한 내용은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 요청이 48.3%

<표 16 상담소에 요청한 내용>에서 보여주듯이 오랜 시간이 경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을 요청하는 건이 42건 48.3%로 절반에 달하고 있다. 또한, 법적인 대응도 28건으로 32.2%가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피해자들이 시간이 많이 경과 된 사건이지만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고,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가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일 때 심리적 치유에 집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친족 성폭력은 피해 이후 제대로 된 대응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이나 의료지원도 여러 가지 장벽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성폭력 피해자가 의료지원을 받으려면 여성가족부 지침상 2년 이상 경과된 피해의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요구하고 있고 정신과 전문의가 성폭력 후유증이라는 소견서를 써주는 것도 한계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표 16>에서도 확인되듯이 오랜 시간 동안 피해에 대한 트라우마를 해소하지 못하였고 시간이 지난 뒤 심리상담으로 치유를 하려고 할 경우 더 오랜 치유과정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의료지원을 받기는 더 어려운 현실에 부딪힌다. 그것이 피해자들의 치유에 또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표 16 상담소에 요청한 내용

<단위: 건(%)>

요청내용 건수	법률	의료지원 및 심리상담지원	개인적인 대응	피해보상	쉼터	기타
87 (100)	28 (32.2)	42 (48.3)	10 (11.5)	2 (2.3)	2 (2.3)	3 (3.4)

2. 교육기관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상담 세부통계 및 분석

한국사회에서 학교라는 공간은 교육의 기회를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는 순기능을 가진 반면에 대규모의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성적 등을 이용해 학생 간 서열을 매기는 방식으로 경쟁적인 관계를 조장하고, 직위나 나이 등을 이용한 수직적인 권위가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직된 조직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학생들은 일상적인 차별과 성폭력, 인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 어리고 미성숙한 존재로 여겨지기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식되지 않았다. 때문에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인정받기 어려웠고, 은폐되기 쉬웠다. 그러나 2018년 초부터 한국사회 전역에서 들불처럼 일어났던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스쿨미투를 통해 학교나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주변에 알리거나 공론화해왔다.

본 상담소는 2019년 전체 상담통계 중 학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어난 성폭력 상담을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전체 912건 중 초등·중등·고등 과정의 ‘학교’와 관련된 관계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상담 41건과 ‘학원’과 관련된 관계에서 일어난 사건 관련 상담 32건을 합친 73건(8%)의 상담통계를 분석하였다. 좀 더 면밀한 분석을 위해 전체 상담통계 중에서 피해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 연령이 8세부터 19세 사이인 164건(18%)의 상담통계를 참고하여 비교하기도 하였다.

2-1. 피해자 성별이 여성인 경우가 83.6%, 남성인 경우가 15% 차지

<표 17 피/가해자 성별>에서 피해자의 성별을 보면, 총 73건의 상담 중 여성이 피해자인 상담이 61건으로 83.6%를 차지하고, 남성이 피해자인 상담이 11건으로 15%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전체 상담통계의 피해자 성별 통계에서 피해자가 여성인 성폭력 상담이 차지하는 비율인 92.1%에 비해 적다고 볼 수도 있다. 성별뿐 아니라 나이와 지위가 권력의 차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교나 학원이라는 조직의 특성상 15%(11건)를 차지하는 남성 피해자는 전체 상담통계의 남성피해자 6.8%의 두 배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가해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 가해자의 비율이 95%(69건)로, 여성 가해자(2건)와 가해자 성별 미상(2건)에 비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피해자가 남성인 상담에서 가해자의 성별은 11건 모두 남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력의 차이에 기인하는 성폭력의 특성으로 보았을 때, 나이가 어리거나 지위가 낮은 상대를 취약한 대상으로 인식할 때 성폭력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7 교육기관과 관련된 성폭력 상담 중 피/가해자 성별

<단위: 건(%)>

피해자 \ 가해자	남성	여성	성별 미상	피해자 계
여성	59 (80.8)	1 (1.3)	1 (1.3)	61 (83.6)
남성	10 (13.7)	1 (1.3)	0 (0.0)	11 (15.0)
성별 미상	0 (0.0)	0 (0.0)	1 (1.3)	1 (1.3)
가해자 계	69 (94.5)	2 (2.7)	2 (2.7)	73 (100)

2-2. 동급생 및 선배에 의한 피해가 52.1%, 교사에 의한 피해가 38.3%, 제자에 의한 피해 8.2%

2019년 전체 상담통계에서 연령이 8세부터 19세 사이인 피해자의 상담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표 18>에서 볼 수 있다. 총 164건 중 친족을 포함하는 친인척 관계가 47건, 초중고와 학원을 포함하는 교육기관과 관련된 관계가 48건으로 거의 비슷하게 30%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보인다.

모르는 사람(7건)과 미상(10건)을 제외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90%를 차지하며 전체 통계 87.6%에 해당한다. 이는 성폭력이 아는 관계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시공간을 공유하는 가까운 관계에서 주로 일어나는데, 특히 20세 미만 미성년의 주된 생활공간인 가정 및 교육기관과 관련된 관계에서 대부분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표 18 전체 상담통계 중 8세 이상 20세 미만 피해자 상담 건 중 피/가해자 관계

<단위: 건(%)>

피해연령 \ 관계	교육기관		친인척				동네사람	분류외*	전·현 데이트 상대	모르는 사람	서비스 제공자	대학	미상
	초중고	학원	친족	4촌 이내	2촌 이내	친족외 인척							
청소년 (14세-19세)	23 (14.0)	11 (6.7)	10 (6.0)	5 (3.0)		3 (1.8)	14 (8.5)	9 (5.5)	11 (6.7)	3 (1.8)	3 (1.8)	1 (0.6)	9 (5.5)
어린이 (8세-13세)	10 (6.0)	4 (2.4)	18 (1.1)	9 (5.5)	1 (0.6)	1 (0.6)	10 (6.0)	4 (2.4)		4 (2.4)			1 (0.6)
계	48 (29.2)		47 (28.6)				24 (14.6)	13 (7.9)	11 (6.7)	7 (4.2)	3 (1.8)	1 (0.6)	10 (6.1)

* 채팅, 동호회, 소개, 주변인의 지인 등이 분류외에 해당된다.

학교 및 학원과 관련된 관계에서 일어난 73건(20세 미만 피해 48건 포함)의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를 <표 19>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동급생에 의한 피해가 32건으로 43.8%에 달하고, 그 다음으로 교사에 의한 피해가 28건으로 38.3%를 차지한다. 그 밖에 선배에 의한 피해 상담 6건(8.2%), 제자로부터의 피해 상담 6건(8.2%), 직원으로부터의 피해 상담 1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가시화되고 있는 스쿨미투가 주로 교사에 의해 행해지는 만성화된 성차별/성희롱 발언과 성추행 등의 성폭력을 고발하는 운동이라고 한다면, <표19>에서 38.3%를 차지하는 교사에 의한 성폭력 상담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동급생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해당 연령대가 가장 친밀한 집단이 또래집단이기 때문이다. 선배나 후배를 포함하는 동일 연령대 내에서의 피해를 합하면 38건

으로 52.1%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 기관 내에서 뿐만 아니라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도 그 관계가 이어지면서 또래집단이 공유하는 시공간이 더 확장되어 가고 있다.

표 19 교육기관과 관련된 성폭력 상담 중 가해자 관계

<단위: 건(%)>

건수	가해자	동급생	교사	선배	제자	직원
73 (100)		32 (43.8)	28 (38.3)	6 (8.2)	6 (8.2)	1 (1.4)

흔히 스토킹미투가 중·고등학교 시기의 청소년들(혹은 해당 시기에 학내 성폭력을 경험한 성인들)에 의해 발화되는 것이라 여겨지지만, 교육기관이 가진 폐쇄성에 기반해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인권침해와 성폭력 등의 불평등한 구조를 고발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교육기관 내 성인 피해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자에 의해 일어난 성폭력 상담을 보면 모두, 남성 학생이 가해자이고 피해자가 성인 여성인 경우였다. 이는 피해자가 교사이거나 학원강사, 자원봉사자로서 권위나 권력을 가진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중심 사회에서 주로 성적으로 대상화되는 ‘여성’과 그 대상을 주로 소비하는 ‘남성’으로서의 성별 권력이 교육기관에서도 재연되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¹⁾.

2-3. 피해유형으로는 강제추행 44%, 성희롱 22%, 강간 22% 순

<표 20>의 피해유형으로는 강제추행이 32건(43.8%)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과 강간이 각각 16건씩 21.9%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 2.7%(2건), 준강간 3%(2건) 등이 나타났다. 전체 상담통계의 피해유형을 보면 강제추행(37.3%), 강간(31.1%), 성희롱(14.3%), 카메라 이용 촬영 등 17.3%) 순으로 나타나는데, 교육기관과 관련된 피해상담에서는 강제추행과 성희롱이 좀 더 높은 비율을 보인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20 교육기관과 관련된 성폭력 상담 중 피해유형

<단위: 건(%)>

유형 건수	강제추행	강간	성희롱	스토킹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촬영	통신매체 이용음란	특수
73 (100)	32 (43.8)	16 (21.9)	16 (21.9)	1 (1.3)	1 (1.3)	2 (2.7)	1 (1.3)	1 (1.3)	2 (2.7)	1 (1.3)

1) 이러한 점에 대해 2018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주최 집담회 <피해와 생계사이, 직장내 성폭력을 말하기>에 참여한 현직 여성 교사인 패널은 다음과 같이 짚은 바 있다

“일상생활을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평등한 사이인 줄 알았지만 남성의 시선에서 여성을 신체 부위로 단편화시켜 성적인 자극과 호기심을 충족하려는 남학생들의 욕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성중심 사회와 남성연대문화가 제 몸을 통제하려 하고 수치스럽게 여기게 하는 큰 이유가 되었던 것 같고, 이것이 그대로 반영되어 ‘학교’에서 재생산되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오름, “발표 3. 학교 내 성폭력을 말하다: 나라는 이유로 내가 지워지는 학교에서 ‘나’를 말하기”, 의심에서 지지로, 함께하는 성문화운동 집담회 <피해와 생계 사이, 직장 내 성폭력을 말하다> 자료집, 14p. 한국성폭력상담소, 2018

2-4. 피해자가 20세 미만의 미성년인 경우가 65.8%, 성인인 경우가 34.2%

<표 21>을 보면, 총 73건의 상담 중 피해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가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인 경우가 14건(19.2%), 14세 이상 19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가 34건(46.6%)으로 20세 미만의 미성년인 경우가 48건(65.8%)으로 집계됐다. 피해자가 20세 이상 성인인 경우는 25건으로 34.2%를 차지했는데, 여기에는 학교 교사가 피해자인 6건과 학원 수강생 중 피해자가 성인인 19건이 이에 해당한다. 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의 특성상 무용, 운동, 어학, 음악 등 성인이 수강하는 학원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21 교육기관과 관련된 성폭력 상담 중 피해시 연령

<단위: 건(%)>

건수	피해시 연령	어린이(8세~13세)	청소년(14세~19세)	성인(20세 이상)
73 (100)		14 (19.2)	34 (46.6)	25 (34.2)

2-5. 피해 이후 상담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한 달 이내가 27%로 가장 높아

성폭력 피해 이후 상담소에 상담하기까지 걸린 기간은 한 달 이내가 20건(2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년 미만이 16건, 5년 미만 5건, 10년 미만 4건, 10년 이상이 2건, 미상이 2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족 성폭력 상담 세부통계에서 1년 미만이 24.1%, 10년 이상 경과한 후 상담하는 비율이 55.2%인 것과 크게 대비되는 결과다.

표 22 교육기관과 관련된 성폭력 상담 중 피해 이후 상담까지의 경과기간

<단위: 건(%)>

건수	경과기간	1개월 이내	1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미상
73 (100)		20 (27.3)	16 (21.9)	5 (6.8)	4 (5.4)	2 (2.7)	26 (35.6)

<표 23>에서 피해자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한 20건(21.5%)과 함께 조직 및 공동체에 문제제기한 9건(9.7%)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시도한 기타 50건(53.7%)은 모두 교육기관과 관련된 관계에서 피해가 일어났을 때 주변인 혹은 기관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사건 해결 과정을 시작한 비율이 높은 것과 연결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표 23 교육기관과 관련된 성폭력 상담 중 사전대응방법(중복)

<단위: 건(%)>

건수	방법	기타**	주변도움요청	법적	조직 및 공동체	사과요구	의료
93 (100)		50 (53.7)	20 (21.5)	10 (10.8)	9 (9.7)	3 (3.2)	1 (1.1)

** 부모나 가족, 교사 등을 비롯한 주변인에게 알리거나, 가해자 혹은 성폭력예방의 책임을 가진 해당기관에 항의, 언론제보 등을 포함하고, 다수의 방법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경우들이 <기타>에 해당함

이는 미투운동 이후 주변에서 성폭력에 대한 민감성이 높아져, 사건을 인지한 후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또한, 성폭력 피해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도적 기반(기관 및 학교 등에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 의무화²⁾,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³⁾, 학교 내 폭력 대응 자치위원회 구성⁴⁾, 전문상담교사 배치⁵⁾ 등)이 안착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2-6. 대리인 상담(64.4%)이 본인 상담(32.9%)의 두 배에 달해

<표 24 내담자와 피해자 관계>를 보면, 대리인 상담이 47건으로 64.4%를 차지하고, 본인 상담은 24건인 32.9%를 차지하여, 전체 상담통계(대리인 36.3%, 본인 61.6%)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교육기관과 관련된 관계에서 일어난 성폭력 상담에서 대리인 상담이 많은 이유는 주변인에게 피해 상황을 공유하거나 그와 관련한 소통을 한 경우가 높은 것과 연관된다. 대체적으로 어린이부터 십대에 이르는 연령대의 피해자들은 주변에 자신의 피해를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청소년이 피해를 호소하였을 때 은폐하거나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대신 다양한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주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또는 본 상담소의 상담 시간(평일 낮 시간대)과 상담방법(1차 상담은 주로 전화 상담)이 SNS나 온라인 소통에 익숙한 십대 청소년 피해자들보다 성인들이 접근하기에 비교적 용이하여 성인인 대리인들의 상담이 높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본다.

표 24 교육기관과 관련된 성폭력 상담 중 내담자와 피해자 관계

<단위: 건(%)>

관계 건수	대리인 47(64.4)								본인	미상	본인+ 대리인 동반
	가족 친인척	공동 및 유관기관	사회 복지 기관	이웃 친구	직장	학교 학원	데이트 상대	시민 사회 단체			
73 (100)	23 (31.5)	3 (4.1)	1 (1.4)	7 (9.5)	1 (1.4)	10 (13.7)	1 (1.4)	1 (1.4)	24 (32.9)	1 (1.3)	1 (1.3)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성폭력예방교육 등)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기능)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III. 결론

□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투운동 변화의 물결은 2019년에도 계속되었다. #미투운동으로 고발된 성폭력 피해자들이 유죄를 선고받았고 성폭력을 은폐하는 경·검찰을 규탄하는 시국 광장이 이어졌으며 버닝썬, 텔레그램 내 성 착취 등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남성연대 카르텔이 폭로되었다. 이렇게 거대한 물결을 이끌어나가는 힘은 성폭력 생존자들의 말하기에서 시작되었다. 본 상담소는 현재까지 이러한 말하기를 이어나가고 있는 생존자들에 주목하여 2019년 상담통계에서 친족 성폭력과 학교 및 학원 등 교육기관 내 성폭력을 세부 분석하였다.

□ 친족 성폭력은 어린 시절 가까운 친족에게 피해를 당하고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지지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치유를 위해 상담소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은 친족 성폭력 상담의 55.2%가 피해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후 상담을 했다는 통계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성폭력 유형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치이며 그만큼 드러나지 않은 친족 성폭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투운동 이후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도 사회에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피해 이후 일상을 살아가는 친족 성폭력 생존자의 만화가 연재⁶⁾되고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에 관한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친족 성폭력 말하기는 그 자체로 성폭력에 관한 통념과 가족중심주의에 저항한다. 이러한 말하기는 또다시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등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대한 물결이 될 것이다.

□ 교육기관 내 성폭력 세부통계는 젠더, 연령, 지위 등 여러 권력관계가 작용하는 교육기관 안에서 성폭력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상담통계에서 6.8%인 남성 피해자의 비율이 교육 기관 내 성폭력에서는 15%로 크게 나타났는데 가해자는 모두 남성이었다. 이는 성폭력이 발생할 때 젠더 이외에 연령이나 지위 권력 또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가해자보다 지위나 연령이 높더라도 성폭력이 발생했던 사례들도 확인할 수 있었다. 8.2%의 제자에 의한 피해가 그 경우이다.

□ 2015년에는 전체 상담통계상 본인이 직접 상담한 비율이 매해 50% 초중반이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이 조금씩 커져 2018년에 처음으로 60%대에 진입하였고, 2019년도 61.6%의 비중을 차지했다.(대리인 상담 비율은 36.3%) 이는 성폭력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스스로 상담소를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증가했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친족 성폭력과 교육기관 내 성폭력은 대리인 상담 비율이 각각 52.9%, 64.4%로 전체 상담통계보다 높았는데 이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며 그만큼 주변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 주변인의 태도는 피해자의 치유와 일상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며 주변인의 공감과 지지는 피해자에게 큰 힘이 된다.

6) 친족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수기를 담은 <27-10>은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되었고, 단행본도 발행되었다.